“승보종찰 송광사 참배, 한 번에”

서울–송광사 직통 고속버스 개통
1월 2일 송광사 일주문서 개통식
강남 센트럴시티~송광사 직통
하루 2회 운행…무환승 참배 가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총림 송광사와 서울을 잇는 직통 고속버스 노선이 개통돼 신행 및 방문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1월 2일 사찰 산문 앞에서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김문수 국회의원, 정영균 전남도의원, 오행숙 순천시의원, 김미란 송광면장,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직통 고속버스 노선 개통식을 거행하고 자축했다.

이번에 개통된 노선은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출발해 송광사 산문, 즉 경내 일주문 앞까지 바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조계총림 송광사는 산문(일주문) 앞에서 서울~송광사 시외버스 노선 개통식을 거행했다.

그동안 송광사를 찾기 위해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를 서너 차례 갈아타야 했고 이동 시간도 반나절 이상 소요됐지만, 직통 노선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됐다.

해당 노선은 금호고속과 광우고속이 공동 운행하며, 서울행은 오전 9시 30분과 오후 4시, 송광사행은 오전 8시 40분과 오후 3시 10분 등 하루 두 차례씩 매일 운행된다. 특히 사찰 경내 산문까지 버스가 직접 진입함으로써 고령 신도와 단체 참배객,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개통식 당일 오전 9시 30분, 서울행 첫 차량이 산문을 경유하자 스님들과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새 노선의 출발을 축하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주지 무자 스님은 “많은 관계기관과 지역 인사들이 마음을 모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며 “서울과 송광사를 오가는 길이 훨씬 편리해진 만큼,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송광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승하차 시설과 주변 환경을 더욱 보강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광사 사부대중과 신도들은 버스의 무사안녕과 운행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며 개통식을 회향했다.

아들의 못다 이룬 꿈, 로터스관 건립 불사로 새기다

김종애 동국대 정각원 행정과장
子 엄성호 씨 부의금 1억원 기부
“아들 숨결 선센터 머물길 바래”
동국대, 로터스관에 영구 보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리기 위해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불사에 참여한 애틋한 모정이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지난해 12월 15일, 본교 김정애 정각원 행정팀 과장이 교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40년 근속 직원의 학교 사랑을 넘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리는 어머니의 애틋한 모정(母情)이 담겨 있어 교내 안팎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 과장은 아들 故 엄성호 씨의 1주기인 1월 27일을 앞두고 장례 이후 모인 부의금을 학교에 전달했다. 엄 씨는 동국대 WISE캠퍼스 스포츠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캠퍼스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공군 항공구조사(SART)에 지원했다. 그는 1년여의 힘든 훈련 과정을 우수하게 마치고 공군 항공구조사(SART) 대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의 꿈을 펼치던 자랑스런 ‘동국 가족’이었다.



지난해 12월 15일, 동국대 김정애 정각원 행정팀 과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교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김 과장이 기부처로 로터스관, 그중에서도 ‘선(禪)센터’를 택한 이유는 남다르다. 명상과 수행, 마음 치유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선센터가 아들의 못다 한 꿈과 기억을 가장 온전히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동국대는 나에게 40년의 일터였지만, 아들에게는 미래를 꿈꾸던 배움의 터전이었다”며 “성실하고 착했던 아들의 이름과 숨결이 선센터에 머물며 학업과 일상에 지친 후배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이번 결심에는 김 과장 가족과 오랜 인연을 맺어 온 학교법인 동국대전 이사장 법산 스님의 조언도 큰 힘이 됐다. 엄 씨가 어린 시절 ‘스님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법산 스님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아들의 뜻을 가장 값지게 기리는 방법으로 ‘마음의 인연을 학교에 남기는 공덕’을 제안했다. 가족들은 이에 깊이 공감해 뜻을 모았다.

윤재웅 총장은 “이번 기부금은 단순한 발전기금을 넘어 한 어머니의 사랑과 한 청년의 꿈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라며 “김 과장과 엄 씨의 뜻을 받들어 로터스관 선센터가 구성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불교의 자비보시행을 실천하는 숭고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동국대는 엄 씨의 뜻을 기려 로터스관 내 선센터 공간에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록하고 보존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베트남, 패엽경 기술 보존 나섰다

19세기 중반 캄보디아서 전해져
계승자 육성·자료 아카이빙 실시

가장 오래된 불경 제책 방식으로 알려진 패엽경. 말린 야자잎에 불경을 쓰는 이 방식은 현재도 상좌부 불교권에서 전승돼 오고 있다. 베트남 상좌부 불교 공동체에서도 패엽경 제작기술이 전승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화제다. 지난 1월 2일 베트남의 ‘보이스 오브 베트남’은 현재 거의 유일한 베트남 패엽경 제작자인 차우 티 스님의 이야기를 전했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한 베트남 남서부의 안장성. 이곳은 캄보디아계 베트남인인 크메르족이 다수 거주함에 따라 대승불교 성행하는 베트남 가운데서도 자체적인 상좌부 불교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현재 안장성에서 야자잎에 글자를 새겨 패엽경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인물은 소아이소 사원의 주지 차우 티 스님이다. 스님은 “야자잎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의지력, 인내심 그리고 열정을 요구하는 특별한 예술적 창작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 권의 패엽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자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팔리어 문법과 표기법에 대한 이해와 각 경전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차우 티 스님은 24세 때 패엽경 제작법을 배우기 시작해 세납 85세가 넘는 지금까지 전통을 보존한다는 사명감으로 패엽경을 제작하고 있다.

베트남 크메르 문화 연구자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패엽경 제작기술은 19세기 중반경 캄보디아에서 전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제작된 패엽경들은 대부분 고대 크메르 문자로 쓰인 팔리어 불경이다. 불경 외에도 패엽경에는 민속, 달력, 의학 등 다양한 시대에 걸친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제작기술의 보존과 전승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차우 티 스님은 “기술을 배우려는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결정적으로 재료 수급 또한 큰 문제다. 야자잎을 비롯해 중요한 제작도구는 모두 캄보디아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고충을 전했다.

최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수민족종교부는 안장성의 패엽경 제작 기술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난 2022년 안장성 행정부는 2030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보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승인했다. 먼저 4년간 패엽경의 목록 작성 및 분류, 손상된 경전 보수 및 보존처리, 디지털 아카이빙을 완료한 후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안장성 크메르족의 패엽경 문자 지식 및 기술’을 등재하기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일환으로 최근 차우 티 스님이 주석하는 소아이소 사원에는 정부와 현지 불교계의 지원으로 패엽경 제작 강좌가 개설됐다. 스님은 “패엽경은 단순한 불경이 아닌 크메르족과 베트남 상좌부 불교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오롯이 담겨있다. 그렇기에 각 경전은 하나의 작은 도서관과 같다”며 “패엽경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패엽경을 제작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는 차우 티 스님. 사진 출처=보이스 오브 베트남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사부대중 일동
화계사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불교입문(3개월) • 천수경(3개월) • 선 · 명상 입문(10회)
불교대학, 대학원, 경전반 3월 14일(토) 입학식
문의) 02–997–6469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02)997–6469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주지 석산 성행
기획 명원 포교사 수인
총무 명법 노전 정타
재무 명종 부전 정완, 강륜
포교 명우 신도회장 자연
사부대중 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